

성결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

풍성한 권능의 역사로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성결의 말씀을 확증하며 널리 전파한 이수진 목사의 러시아·라트비아 선교 출장.

믿는다 하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

주님을 영접하여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후, 죄의 담을 헐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끌어내는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는 비결.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시는 은혜~”

삶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영혼을 살리는 주의 종이 된 이지영 목사 와 잉태의 축복을 받은 말레이시아 통쉬위잉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757호 2016년 10월 2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갈급한 유럽 영혼들에게 권능과 은혜의 단비를!

러시아·라트비아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 인도



2003년, 러시아 기독교 사상 최대 인파가 운집한 '이재록 목사 초청 러시아 연합대성회'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동토의 땅 러시아를 진동시켰다. 이후 러시아만민교단협의회 총회장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목사(사진 4, 중앙)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선교가 이뤄지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는 현지 요청에 따라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를 인도하여 권능을 체험케 함으로 참 믿음을 갖도록 돕고 있다.

지난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이수진 목사(사진 1)를 강사로 러시아, 라트비아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가 열렸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손수건(행 19:11~12)을 통해 풍성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으며, 현지 목회자와 성도들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맞은 듯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케 되었다.

TBN러시아 방송, 집회 보도

첫 집회는 9월 1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콜리제이 극장에서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권능의 손수건 집회로 열렸다(사진 3). 먼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권능 사역이 담긴 '권능 DVD' 상영 후, 선교팀의 공연에 이어 강사 이수진 목사는 '빛 가운데 행할 때 축복'(요일 1:5~7)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뒤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었다.

35년간 청력을 완전히 잃었던 한쪽 귀가 잘 들리게 되었고, 시력이 회복되었으며, 편마비와 심한 관절염 등을 치료받았다. 지팡이나 목발을 버리고 걷게 됨은 물론, 35년 된 당뇨병을 치료받았다고 간증하는 여의사도 있었다(사진 7~10). TBN 러시아 방송 뉴스팀에서는 강사 인터뷰와 집회를 촬영해 여러 차례 보도했다.

다음날인 18일에는 '2003 이재록 목사 초청 러시아 연합대성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안드레이 볼샤코프 목사의 교회에서 '열 처녀 비유'의 말씀을 전했다.

19일에는 '성결'이라는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가 상트페테르부르크 만민교회(담임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목사)에서 진행되었다. 러시아의 타 지역 목회자들과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프랑스, 이스라엘에서도 참석하였다(사진 4).

강사 이 목사는 "불같은 기도로 죄를 버리고 성결되어야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으며 목회자들은 성결의 중요성을 깨우치며 결단하였다.

러시아만민교단협의회는 이번 집회와 세미나를 통해 상트페테르부르크뿐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확대되었고, 성결의 복음으로 러시아 전역을 깨우는 사역에 더욱 하나 되어 이뤄갈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라트비아 최대 교회 집회, 수많은 치료 역사 인빅토리 통해 인터넷 생중계

9월 21일에는 라트비아 및 주변 나라에 300여 개 지교회를 둔 라트비아 최대 교회인 뉴제너레이션교회(수도 리가 소재)에서 집회가 열렸다. 러시아어권 최대 기독교 포털 사이트인 인빅토리를 통해 인터넷 생중계가 되는 가운데 예능위원회 솔

리스트 김정은 자매의 러시아어 찬양과 파워워십팀의 공연(사진 2, 5) 후, 강사 이 목사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라는 말씀을 증거하였다.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설교 후 환자기도를 통해 시력과 청력이 회복되고 디스크, 관절염, 종양, 우울증, 교통사고 후유증, 편마비 등 수많은 질병을 치료받아 영광 돌렸다.

23일에는 라트비아 발미에라 시 계시 교회에서 마지막 집회가 있었다(사진 6). 강사 이 목사는 '빛 가운데 행할 때 축복'이라는 말씀을 증거하였고, 이어진 '환자기도'로 관절염, 허리디스크 등 많은 사람이 치료받아 걷고 뛰며 기뻐했다.

이번 러시아·라트비아 선교 출장에도 선교팀과 시종 함께하시며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축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7:21)

“...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한일서 5:16)

믿는다 하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

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악한 것을 고칠 권능도 없으며, 만약 그런 능력이 있어도 악한 영들이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치료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리가 없습니다. 또한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 훼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사람을 부인하며 그를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것이니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모세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했지요(출 16:8).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욕심이 생겨서 땅값의 일부를 숨기고 베드로에게 전부를 드리는 척했습니다. 이는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회개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죽고 말았지요(행 5:1~11). 따라서 성령을 모독, 훼방, 거역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2.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경우

히브리서 6장 4-6절에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 하나님을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을 받고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 알고 믿으면서도 세상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함으로 현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 그저 지

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다가 세상으로 빠져 버렸다면 어느 때가 다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세상으로 되돌아간 사람은 어둠으로 가득 차서 더 크게 사단의 역사를 받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보다 더욱 악을 발하고 이전에 받은 은혜를 부인하며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들은 회개의 영을 받을 수 없으니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았으나 자기 유익을 위해 스승인 예수님을 은 삼십에 팔아 버렸지요. 그리고 결국, 그는 회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자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3.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범죄하는 경우

히브리서 10장 26~27절에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고 믿음이 있다면 행하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22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멍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했습니다. 이처럼 짐짓 죄를 범하는 사람은 잘못된 줄 알아 회개한 후에도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잠시 시험에 들어 살인이라는 큰 죄를 지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자 즉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로 인해

큰 연단을 받을 때도 겸비함으로 통과하여 마음속의 죄성까지도 뽑아버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반면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깨우쳐 주어도 오히려 변명하며 회개하지 않고 변변히 범죄하므로 결국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범죄하면 성령이 탄식하며 깨우쳐 주시니 철저히 회개하고 빛 가운데 거하며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짐짓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므로 회개의 영을 받지 못하니 결국 성령이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살전 5:19).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여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범죄한 후 하나님께 회개하여 죄의 담을 헐지 않으면 이름이 다시 흐려지게 됩니다(계 3:5).

혹여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할 수 있으며, 구원받는데도 겨우 부끄러운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죄를 피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며(히 12:4),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살전 5:2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애통할 일인지요. 지난 호에 이어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성령 모독, 훼방, 거역하는 경우

지난 호에 사망에 이르는 죄, 곧 성령 모독, 훼방, 거역은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말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대적하는 것이라 했습니다(마 12:31~32, 막 3:20~30, 눅 12:10). 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과 달리 믿음이 있노라 하고 진리를 알면서도 자신의 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한 것이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질병과 악한 것이 치료되고 귀신이 물러가는 등의 역사를 보고 오히려 ‘사단의 역사’라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훼방하고 거역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이라면 권능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 리 는 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기도의 힘’을 체험하려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무한한 축복을 끌어내리는 기도
누구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명심해야 할 두 가지 분야를 살펴본다.



Part 1_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위력을 나타낼 수 있는지 깨달아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릴 수 있는 ‘불같은 기도’를 올려야 한다

성경 에스더서를 보면 바사국의 에스더 왕비는 음모로 인해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이 모두 학살당할 위기에 처하자 3일 금식기도를 드린 후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나아갔다.

왕비라 해도 왕이 부를 때에만 나아갈 수 있고, 부르지 않을 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왕의 마음도 능히 주관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린 에스더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면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으며, 한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대단한 위력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감에 있어서도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릴 때와 같은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

만일 의심하거나 불순종하고 불목, 판단 정죄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으로 올라갈 수 없다. 두 마음이 아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약 1:6~8). 영적인 믿음과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이다(약 5:16).

모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며,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고 자신의 생명을 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 이런 그의 믿음과 사랑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케 하셨으며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해 주셨다.

그러므로 응답받기 위한 기도는 맹목적이거나 허공을 울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녕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불같은 기도는 영계의 전쟁에서 날마다 ‘여호와 닛시’, 곧 승리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

Part 2_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음성과 주관과 인도를 받아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속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밤사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쭙었고,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 해도 그 뜻에 순종했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경거망동하지 않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역사되는 것임을 믿었기에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겼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때가 많다. 다윗이 왕이 되어 왕궁에서 편안히 안식을 누릴 때 그는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간절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가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고 아들인 솔로몬이 이를 것을 말씀하셨다(대상 22장).

만일 다윗이 사람이 보기에 선한 것을 좇아 무작정 성전을 지으려 했다면 형통치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

에서도 칭찬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먼저 기도를 통해 성전 건축이 하나님 뜻이 아님을 알았기에 후대에 이루어질 성전 건축을 위해 재료를 준비하는 데 있는 힘을 다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영원한 언약을 주시며 놀랍게 축복하셨다(삼하 7장).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소리 자체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을 살피셔서 그 마음의 향을 받으신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단어를 나열하듯이 의미 없이 올리는 기도나 의무감 또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올리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여 어찌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신속히 이루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릴 수 있다.

이런 기도는 하늘 문을 열어 응답과 축복을 끌어내리

는 기도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됨으로 원수 마귀 사단이 두려워 떨며 그 기도를 통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무수한 역사가 나타난다.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기도인 것이다.

똑같이 한 시간을 기도해도 그 사람의 믿음과 성결 정도에 따라 그 향이 다르고 또 얼마나 중심으로 기도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기도제목에 따라 금향로의 크기도 달라진다. 기도제목이 클수록 크기가 크고 채워야 할 기도의 양도 많아 그만큼 응답받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이 있고, 행함과 충성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곧 영혼이 잘된 사람은 조금만 기도해도 기도의 양을 빨리 채울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능력의 기도를 올림으로 신속히 응답받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시 2:8, 91:14~15).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6. 10.2~10.8

이재복 목사의 생명의 말씀

-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1
- 천국 19-24
- 지옥 2-7
- 십자가의 도 3-7
- 공부잘하는 비결 10-11
- 요한계시록 강해 71-77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2

GCN TV설교

- 변화의 힘 (이수진 목사)
-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 (이미영 목사)
- 영의 세계 44 (이희선 목사)
- 믿음의 분량 9 (신동초 목사)
- 열 재앙 46 (정구영 목사)
-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정영호 목사)
- 백보좌 대심판 (김송신 전도사)

해외성회 및 신규 프로그램

- 마지막 때 1
- 권능 스페셜 4
- 말씀 스페셜 4
-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2
- 믿음으로 걸어온 길 36
- 회상 스페셜 4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게) 22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46
- 내 마음의 찬양 34
- 창조와 과학 1
- 모두 드려요 46

“삶의 의미를 깨닫고 영혼구원에 힘쓰니 행복이 넘쳐요”



이지영 목사 (45세, 해외교구 교구장)

저는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고 생각이 많았기에 ‘사람은 왜 사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대학시절에는 철학과 종교 서적을 탐독하고 사회주의, 휴머니즘 등 여러 사상에 심취하기도 하였으나 어디에서도 또렷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 선배의 전도로 ‘혹시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련회에서 뜨겁게 성령을 받은 후에는 간절히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소망이 생겼지요.

대학 졸업 후, 캠퍼스 선교 단체 간사로 임명받은 저는 이른 아침부터 학교에 나가 강의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이렇다 할 부흥이나 영혼들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지요. 오히려 열심을 내며 사역을 한다 해도 판단, 정죄, 시기, 질투, 미움 등 마음의 싸움으로 기쁨이 사라져 앞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에 좌절감마저 들었습니다.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답답함과 갈급함으로 눈물을 흘리던 1997년 어느 날, 우연히 만민중앙교회

주보 모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풀리지 않던 의문점들이 쉽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도’ 말씀 중 “죄가 없는 것이 영계에서는 힘”이라는 내용을 읽을 때는 온몸에 전율과 희열이 느껴졌습니다.

‘아! 진리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저는 서둘러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하여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각종 설교 테이프를 구입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 ‘영혼육’, ‘욥기 강해’, ‘창세기 강해’ 등을 듣고 송이 꿀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에 감탄을 연발하며, 기도의

말겨졌습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어 신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2002년부터 주의 종으로 사역하게 되었지요.

2010년 12월 25일 이후, 급속한 영의 흐름 속에 지난날을 돌아보니 충성한다 했지만 마음의 할례는 게을리하고 내 열심에 빠져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죄성들을 벗어버리기 위해 성령을 의지해 나가니 하나하나 죄성들이 버려지고 마음 깊은 곳에 평안과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마침내 2015년 12월,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지요. 2년 전부터는 해외교구 교구장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성도들을 갈무리하고 있는데, 목자의 사랑이 언어와 문화를 뛰어 넘어 영혼들을 위로하고 계심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사진).

어떤 성도님은 자신의 고향에 당회장님께서 심방을 가셔서 가족을 살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꿈을 자주 꾸지요. 또한 갖가지 질병은 물론 삶의 문제들을 기도받고 해결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 되는 축복된 삶의 간증으로 전도의 열매 또한 맺혀 가니 해외교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행복이 날로 커짐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응답임을 확신하였지요. 1998년 7월, 등록하여 생명의 말씀을 찾은 기쁨으로 열심히 충성해 가니 여러 사명이

“11년간 불임이었는데 이제는 엄마가 된답니다!”

통쉬위잉 집사 (37세, 말레이시아 페낭만민농야교회)

저희는 농야 부부입니다. 결혼 후 1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아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마음의 고통은 더해져만 갔고, 임신부와 예쁜 아기들을 볼 때면 매우 힘들었지요.

2010년 9월, 남편의 친구를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불임도 치료받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교회에 나갔더니 다른 교회와 달리 분위기가 매우 밝았고, GCN방송을 통해 한국 만민중앙교회의 예배 실황을 보는 것도 새로웠으며, 농야들을 위해 수화로 통역해 주니 무척 좋았습니다. 특히 다니엘철야 기도회는 참으로 뜨거웠고 찬양도 은혜로웠지요.

저는 당회장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제가 응답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화목하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했던 것을 하

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2016년 3월에는 GCN방송을 통해 42일간 진행되는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참석하였습니다. 아침 금식을 하며 작정하여 열심히 기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목자의 사랑을 깨우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끄시고자 당회장님께서 저와 같은 농야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느끼며 많은 눈물을 흘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1년 동안 불임이었던 제가 잉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임신 9개월째가 되었고, 11월 초에는 엄마가 되지요. 많은 증거와 축복이 넘치는 제단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자책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920-4512, 010-3343-1537
- 광주만민교회 전남 광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41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겸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종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